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맡은 간호사 ○○○입니다. 여러분 주사 맞아본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주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대답을 듣고) 오늘은 주사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주사를 맞을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주사는 일반적으로 약물의 투여 경로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약물을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피하조직에 투여하는 피하 주사, 피하조직 아래에 있는 근육에 투여하는 근육 주사, 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정맥 주사가 있습니다.

우선 피하 주사는 적은 양의 약물을 몸속에 천천히 흡수시키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어떤 약물들은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느린 피하조직에 투여하는 것입니다. 근육 주사는 피하 주사보다 더 많은 양의 약물을 빠르게 흡수시키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근육에는 피하조직보다 혈관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피하조직에 투여하면 잘 흡수가 되지 않아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항생제 같은 약물들은 근육 주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육 주사는 주로 엉덩이 윗부분이나 팔뚝에 주사하는데, 근육에 약물을 투여하려면 바늘을 깊숙이 찔러 넣어야 하기 때문에 90도 각도로 주사를 놓습니다. 정맥 주사는 약물의 농도와 용량을 일정하게 지속적으로 투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약물을 혈관에 직접 투여하기 때문에 효과가 다른 주사들보다 빨리 나타나고, 통증 없이 다량의 약물을 주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링거액을 투여할 때 사용합니다.

이러한 주사들은 주삿바늘의 길이와 모양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피하 주사는 0.9 ~ 1.6 센티미터의 바늘을 사용하지만 근육 주사는 이보다 더 긴 바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정맥 주사는 주사를 맞을 동안 주삿바늘이 혈관벽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하 주사나 근육 주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날카로운 주삿바늘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주사를 맞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피하 주사의 경우에는 피하조직의 손상을 막고 약물을 천천히 흡수시켜야 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은 부위를 문지르면 안 됩니다. 반면, 근육 주사를 맞고 나서는 약물의 빠른 흡수를 돕기 위해 주사를 맞은 부위를 가볍게 문질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맥 주사는 바늘이 삽입되어 있는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강연 유익하셨나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위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료의 출처를 밝히며 강연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② 강연의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여 강연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며 강연의 내용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④ 화제와 관련된 실태를 언급하며 화제 선정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청중을 칭찬하는 말로 강연을 시작하여 청중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다.

2. 다음은 학생들이 강연을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1: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주사의 종류가 다양하구나. 내가 어제 병원에서 맞은 주사는 어떤 주사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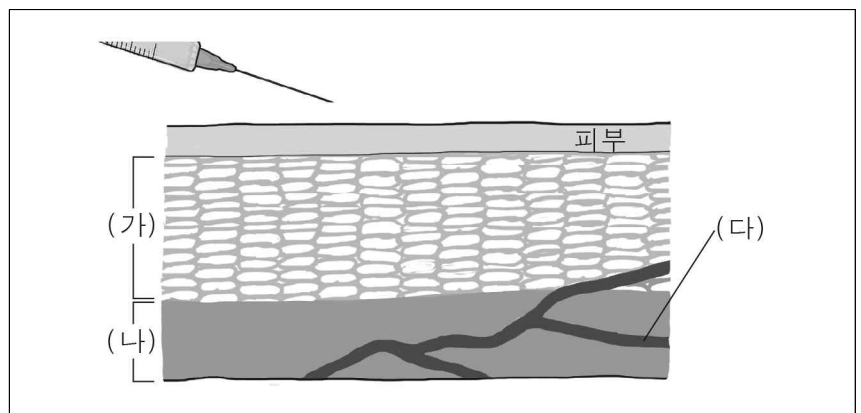
학생 2: 지금까지는 주사를 맞은 부위를 왜 문질러야 하는지 모르고 문질렀는데, 주사의 종류에 따라 주사를 맞은 후의 유의할 점이 다르구나. 주사 맞기 전에 유의할 점은 없을까? 강연이 끝난 후에 간호사 선생님께 여쭙봐야겠어.

학생 3: 주사의 종류에 따라 약물의 흡수 속도가 달라지고, 약물의 특성에 따라 주사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구나. 그런데 피하 주사를 놓을 때도 주사 각도가 중요할까?

- ① ‘학생 1’은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 비교하며 듣고 있다.
- ② ‘학생 2’는 강연을 들으며 생긴 의문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듣고 있다.
- ③ ‘학생 3’은 강연 내용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정리하며 듣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강연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듣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강연에서 언급된 내용 중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며 듣고 있다.

3. 다음은 강연을 들은 후 강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만든 학습지의 일부이다.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 투여하면 통증이 유발될 수 있는 약물들은 (나)에 주사해야겠군.
- ② (가)보다 (나)에서 약물의 흡수가 빠른 이유는 (나)에 혈관이 더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겠군.
- ③ (가)에 주사를 맞을 때와 달리 (나)에 주사를 맞은 후에는 조직의 손상을 막기 위해 주사 맞은 부위를 문지르지 말아야겠군.
- ④ (다)에 직접 약물을 투여하면 (가)와 (나)에 주사를 놓을 때보다 약물의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겠군.
- ⑤ (다)에 놓는 주사는 혈관벽의 손상을 막기 위해 (가)와 (나)에 놓는 주사보다 덜 날카로운 주삿바늘을 사용하겠군.

[4~7] (가)는 학생들이 실시한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가)에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오늘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 기술은 허용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해 주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찬성 1: 저희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 기술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유전자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배아 상태의 유전자를 편집하여 유전자 정보 전체를 교정할 수 있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유전자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소시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140조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하여 질병 발생 확률을 줄인다면 이와 같은 비용을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 기술은 생명 과학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허용되면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고, 이 기술과 관련된 연구는 보다 활성화될 것입니다.

반대 2: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140조 원을 넘는다고 하셨는데요, 모두 유전자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 자료는 근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A]

찬성 1: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공단의 발표 자료에 포함된 대다수의 질병이 유전자와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반대 1: 저희는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기술은 아직까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유전자 변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제가 미래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을 사용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기술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가치를 인정받고 소중한 생명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자 중 결함이 있는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인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찬성 2: 유전자 편집 기술의 혜택을 소수만이 누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기술이 발전하여 비용을 낮출 수 있다면 그 혜택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B]

반대 1: 비용이 낮아질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사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

유전병을 앓는 소년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을 본 적이 있다. 죽음을 의연히 받아들이는 주인공의 모습이 인상 깊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웠다. 혹시 인간 배아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병에 걸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소년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술을 허용하는 것을 비판하는 입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웠다. 베르누이 법칙을 이용해 비행기를 만들어 ㉠ 먼 원거리를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잘 활용하면 유전병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론이 끝나고 난 후 나는 생각이 복잡해졌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아직 인간 배아에 적용하기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유전자 편집 기술이 불러일으킬 결과들에 대한 반대 측의 의견을 ㉡ 꼼꼼히 생각해 보니 과학의 발전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그래서 나는 과학의 발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과학 소설을 많이 읽기로 했다.

생명 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와 생각이 그 뒤를 쫓기만 한다면 우리는 과학 기술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지 못한 채 끌려만 ㉣ 가게 될 것이다. ㉤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과학 기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의무도 함께 가져야 할 것 같다.

4. (가)의 '입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찬성 1'은 유전자 치료가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유전자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내세우고 있다.
- ② '찬성 1'은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수치로 제시하며, 유전자 편집 기술 연구에 많은 비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반대 1'은 유전자 편집 기술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제시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 ④ '반대 1'은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임을 언급하며,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 전제하고 있는 유전자에 대한 관점을 비판하며, 해당 기술의 비윤리성을 드러내고 있다.

5.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반대 2'는 상대측이 제시한 자료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근거의 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 ② [A]의 '찬성 1'은 상대측의 이의 제기를 일부 인정하며 자신의 의견과 절충하고 있다.
- ③ [B]의 '찬성 2'는 새로운 정보를 통해 향후 전망을 제시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 ④ [B]의 '반대 1'은 상대측의 진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적합한 사례 제시를 통한 반론을 요청하고 있다.
- ⑤ [A]의 '반대 2'와 [B]의 '찬성 2'는 모두 상대측의 주장을 재진술하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추가하고 있다.

6. 다음은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1문단]
○ 나의 과거의 경험과 토론의 내용을 연결지어 나의 생각을 제시해야겠어. ①

[2문단]
○ 유전자 편집 기술을 허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를 제시해야겠어. ②
○ 유전자 편집 기술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유추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해야겠어. ③

[3문단]
○ 토론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언급하며 변화된 생각을 서술해야겠어. ④

[4문단]
○ 우리가 경계해야 할 태도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⑤

7. ㉠ ~ ㉤을 고쳐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먼 거리'로 고쳐야겠어.
 ② ㉡: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곰곰이'로 고쳐야겠어.
 ③ ㉢: 글 전체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해야겠어.
 ④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가고 있다'로 고쳐야겠어.
 ⑤ ㉤: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그러므로'로 바꿔야겠어.

[8 ~ 10] (가)는 학교 신문에 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작성한 메모이고, (나)는 이에 따라 작성한 학생의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의 메모

- 글의 목적: 물티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 제안하기
- 주제: 무분별한 물티슈 사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자.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나) 학생의 글

사용하기 편리하고 휴대성이 좋다는 이유로 물티슈의 사용량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최근 물티슈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물티슈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물티슈의 과도한 사용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는 물티슈가 일반적인 휴지와 달리 플라스틱이 함유된 합성섬유이기 때문이고, 이를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물티슈의 잘못된 사용은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물티슈에는 방부제 등과 같은 화학적 약액이 첨가되어 있음에도 물티슈 제품에 사용상 유의점이 확인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지 않거나 이러한 정보를 학생들이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 물티슈를 사용한 후 제대로 분리배출 하지 않고 변기나 하수구 등에 버리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학교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물티슈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해야 한다. 다음으로, 물티슈 제조 회사에서는 제품 사용에 대한 안내 사항이나 주의 문구를 사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은 물티슈의 용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물티슈를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회에서는 물티슈를 사용한 뒤에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여 변기나 하수구가 아닌 휴지통에 버릴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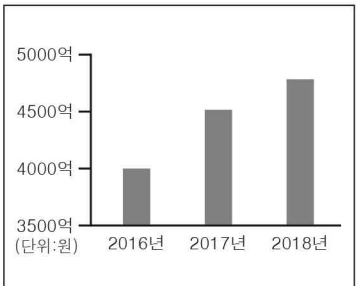
[A]

8.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계획 중 (나)에 반영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물티슈 사용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비교하여 제시한다.
 ② 글의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제별로 제시한다.
 ③ 예상 독자의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들의 물티슈 구매 방법에 대하여 제시한다.
 ④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물티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⑤ 글의 목적에 제시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물티슈의 잘못된 사용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사례를 제시한다.

9.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1] 통계 자료

㉞ 국내 연간 물티슈 시장 규모 ㉟ 학교 학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물티슈에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른다	82%
안다	14%
기타	4%

[자료 2] 신문 기사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는 물에 녹지 않고 하수관로에 유입됨으로써 하수의 흐름을 방해해 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매년 예산 범위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또한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은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되는데, 올바르게 분리배출되지 않은 물티슈는 잘게 부서진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자료 3] 전문가 인터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피부에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많았습니다. 물티슈에는 성분 표시는 되어 있지만 해당 성분의 비율 및 허용 기준치 등은 정확히 표기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물티슈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물티슈의 성분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표기 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자료 1-㉞]를 활용하여, 물티슈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해야겠군.
- ② [자료 2]를 활용하여, 사용한 물티슈를 제대로 분리배출하지 않아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심각성을 강조해야겠군.
- ③ [자료 3]을 활용하여, 물티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정부가 물티슈의 성분 비율 등에 대한 정확한 표기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을 해결 방안으로 추가해야겠군.
- ④ [자료 1-㉞]와 [자료 3]을 활용하여, 물티슈 시장의 확대에 따라 물티슈에 포함되는 화학적 약액의 종류가 늘어나는 실태를 보여주며 물티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겠군.
- ⑤ [자료 1-㉟]와 [자료 2]를 활용하여, 물티슈가 플라스틱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생이 많고 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학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용해야겠군.

10. <조건>에 따라 (나)의 [A]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글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글의 주제를 강조할 것.

- ① 우리 모두는 환경의 파수꾼이다. 물티슈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 ② 물티슈는 우리에게 편리함이라는 선물을 준다. 그 소중함을 잊지 말고 물티슈를 올바르게 사용하자.
- ③ 물티슈를 잘못 사용하면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물티슈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 ④ 물티슈의 무분별한 사용은 개인과 사회, 나아가 환경까지 병들게 한다. 그러므로 물티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자.
- ⑤ 플라스틱이 함유된 물티슈는 환경을 오염시킨다. 사용한 물티슈는 올바르게 처리하여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는 시간을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을 시간 표현이라고 한다. 시간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는데, 시제는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를 기준으로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점인 사건시와의 관계를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으로 나타내는 문법 요소이다.

동작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양상을 표현하는 문법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동작상은 ‘-고 있다’, ‘-아/어 있다’ 등과 같이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의 결합으로 실현된다. 또한 ‘-(으)면서’, ‘-고서’ 등과 같은 연결 어미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한다. 동작상은 어떤 사건이 특정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진행상과, 어떤 사건이 끝났거나 끝난 후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넥타이를 매고 있다.’라는 문장에서처럼 진행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완료상으로도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이 문장은 그가 넥타이를 매는 중이라는 진행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넥타이를 맨 채로 있다는 완료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신체에 무언가를 접촉하는 행위 중 어느 정도 시간의 폭을 요구하는 동사에, ‘-고 있다’가 쓰이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중세 국어에서도 ‘-아/어 있다’ 등과 같이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의 결합이나, ‘-(으)며서’, ‘-고서’ 등과 같은 연결 어미를 통해 동작상이 실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세 국어의 ‘-아/어 있다’는 현대 국어의 ‘-아/어 있다’와 달리 진행상을 실현할 때와 완료상을 실현할 때 모두 사용되었다. 그리고 어간과 결합하는 보조적 연결 어미 ‘-아’는 ‘ㅎ-’ 뒤에서 ‘-야’의 형태로 바뀌어 나타났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ㄱ. 동생이 책을 읽고 있다.
 ㄴ.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다.
 ㄷ.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걸었다.
 ㄹ. 그는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다.
 ㅁ. 나는 밥을 먹고서 집을 나섰다.

- ① ㄱ은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하는 시제가 나타나며, ‘-고 있다’를 통해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② ㄴ은 어떤 사건이 끝난 후의 결과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완료상이 실현되어 있다.
- ③ ㄷ은 연결 어미를 통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건이 완료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④ ㄹ은 진행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완료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⑤ ㅁ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시제가 나타나며, ‘-고서’를 통해 사건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동작상을 표현하고 있다.

12.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중세 국어 자료]

ㄱ. 고즈기 안자 잇거늘
[현대어] 깨끗하게 앉아 있거늘

ㄴ. 서늘흔 디 쉬며셔 자더니
[현대어] 서늘한 곳에서 쉬면서 잤는데

ㄷ. 누늘 長常(장상) 째아 잇더라
[현대어] 눈을 항상 쳐다보고 있었다.

ㄹ. 락 무든 옷 낚고 시름햐 잇더니
[현대어] 때 묻은 옷을 입고 걱정하고 있더니

ㅁ. 문 닫고셔 오직 닐오되
[현대어] 문을 닫고서 오직 이르되

- ① ㄱ에는 ‘-아 있다’가 활용된 형태로 완료상이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ㄴ에는 연결 어미가 사용되어 동작상이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ㄷ에는 ‘-아 있다’의 활용된 형태가 현대 국어의 ‘-아 있다’와 달리 진행의 의미로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ㄷ과 ㄹ을 비교해 보니 보조적 연결 어미 ‘-야’가 ‘-하-’ 뒤에서는 ‘-야’의 형태로 나타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ㄹ과 ㅁ에서는 보조적 연결 어미와 보조 용언이 결합된 형태로 동작상이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13. 다음은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과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음운의 변동에는 인접한 두 음운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 음운의 영향을 받아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때 바뀌게 되는 음운을 ‘A’, 바뀌어 나타난 음운을 ‘B’, 영향을 준 음운을 ‘C’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식	설명
㉠	A → B/_C	A가 C의 영향을 받아 C 앞에서 B로 바뀌는 경우
㉡	A → B/C_	A가 C의 영향을 받아 C 뒤에서 B로 바뀌는 경우

- | | | |
|---|-----|-----|
| | ㉠ | ㉡ |
| ① | 겹눈 | 맨입 |
| ② | 실내 | 국물 |
| ③ | 작년 | 칼날 |
| ④ | 백마 | 잡히다 |
| ⑤ | 끓이다 | 물놀이 |

14.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피동문	사동문
ㄱ. 아기가 엄마에게 안겼다.	ㄴ. 이모가 엄마에게 아기를 안겼다.
ㄷ. 하늘이 건물 사이로 보였다.	ㄹ.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사 진첩을 보였다.

- ① ㄱ을 능동문으로 바꾸면, 바뀐 문장의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2개이다.
- ② ㄴ을 주동문으로 바꾸면, 바뀐 문장의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2개이다.
- ③ ㄱ과 ㄷ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같다.
- ④ ㄴ과 ㄹ을 각각 주동문으로 바꾸면, 바뀐 문장의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는 서로 같다.
- ⑤ ㄷ과 ㄹ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

15. <보기>는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탐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는 절을 관형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관형절을 안은 문장의 두 유형에 대해 배워 봅시다.

안긴문장 내가 책을 읽는다.	+	안은문장 형이 책을 가져갔다.
↓		
Ⓐ	관형절을 안은 문장 형이 [내가 책을 읽는] 책을 가져갔다.	

안긴문장 지구가 동글다.	+	안은문장 나는 사실을 안다.
↓		
Ⓑ	관형절을 안은 문장 나는 [지구가 동글다는] 사실을 안다.	

위에서 보듯이, Ⓐ의 유형처럼 안은문장과 공통된 체언이 생략된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 있고, Ⓑ의 유형처럼 생략된 성분 없이 문장의 필수 성분을 완전하게 갖춘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 있습니다.

[탐구 과제]

○ 다음의 관형절을 안은 문장들을 탐구해 보자.

ㄱ. 그가 지은 시는 감동적이었다. ㄴ. 나는 벽에 걸려 있던 사진을 떠올렸다. ㄷ. 나는 그가 한국에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다. ㄹ. 그 사람이 나를 속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ㅁ. 나는 수건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

- ① ㄱ은 안긴문장의 체언을 생략하여 관형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와 같은 유형이다.
- ② ㄴ은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의 공통된 체언이 생략되지 않고 관형절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와 같은 유형이다.
- ③ ㄷ은 '그가 한국에 돌아왔다.'라는 안긴문장이 생략된 성분 없이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와 같은 유형이다.
- ④ ㄹ은 관형절이 문장의 필수 성분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와 같은 유형이다.
- ⑤ ㅁ은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의 공통된 체언인 '땀'이 관형절에서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 Ⓐ와 같은 유형이다.

[16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철학에서 특정 인물이나 사물 등을 나타내는 '고유 이름'은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 표현이다. 그래서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언어철학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그중 의미지칭이론에 따르면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그 표현이 지칭하는 것, 즉 지시체 자체이다. 이들에 따르면 '금성'이라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금성 자체인 것이다. 하지만 프레게는 이러한 의

미지칭이론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시체와 '뜻'을 구분하여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새롭게 설명하는 이론을 제시한다.

먼저 프레게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지시체라는 의미지칭이론의 입장을 따를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밝힌다. 다음의 두 문장을 보자.

- 1) 셋별은 셋별이다.
- 2) 셋별은 개밥바라기이다.

프레게에 의하면 의미지칭이론의 입장에서 1)과 2)는 완전히 동일한 의미를 지녀야 한다. 왜냐하면 의미지칭이론에 따르면 밀줄 친 '셋별'과 '개밥바라기'라는 두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금성이라는 지시체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레게는 1)은 동어의 반복이기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2)는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 문장을 다르게 인식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고유 이름이 지시체 그 자체가 아닌 '뜻'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프레게는 '셋별'은 아침에 뜨는 별이라는 뜻을, '개밥바라기'는 저녁에 뜨는 별이라는 뜻을 의미하며, '셋별'과 '개밥바라기'는 동일한 지시체인 금성을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말한다. 프레게는 이처럼 동일한 지시체의 서로 다른 제시 방식인 '셋별'과 '개밥바라기'는 다른 뜻을 가진다고 말한다. 따라서 프레게는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지시체가 아니기에 지시체와 뜻을 구분해야 하고, 뜻의 차이로 인해 1)과 2)가 인식적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프레게는 고유 이름에 한정 기술구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정 기술구란 오직 하나의 대상만이 만족하는 조건을 몇 개의 단어나 이런저런 기호로 구성한 언어 표현이다. 예를 들어 프레게는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나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저자'와 같은 한정 기술구도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고유 이름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프레게에 따르면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제자'와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저자'는 고유 이름들이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에 대한 서로 다른 제시 방식으로 각각은 다른 뜻을 가진다.

한편 프레게는 특정 지시체에 대해 개인이 갖고 있는 관념을 뜻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관념은 지시체에서 개인이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주관적인 내적 이미지이다. 반면 뜻은 우리가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에, 언어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합의된 재산인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유는 뜻이 공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뜻이 개인의 관념과 같다고 한다면 뜻은 사람마다 다르게 되고, 의사소통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프레게는 언어 표현의 뜻은 개인이 지시체에 대해 갖는 관념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결국 프레게는 지시체와 뜻을 구분함으로써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의미지칭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 '유니콘'과 같이 지시체가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대상의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존의 이론을 비판한 새로운 이론을 예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 학자가 주장한 이론의 변천 과정을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 ③ 상반된 이론을 제시한 후 두 이론을 절충한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④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각 관점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⑤ 특정 학자가 자신의 이론에 제기된 문제점을 수용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밝히고 있다.

17. <보기>는 프레게의 이론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다.

윗글의 [A]를 참고하여 프레게의 입장에서 <보기>의 ㉠ ~ ㉣를 설명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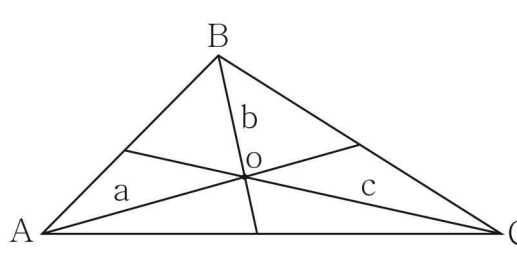
< 보기 >

우리 가족들은 천문대에 가서 ㉠ 밤하늘의 달을 보았다. 그날 우리는 하나의 망원경을 통해 달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 우리 가족이 나눈 대화 속 망원경 렌즈에 맺힌 달의 형상은 모두 같았지만, 그날 망원경의 렌즈를 거쳐 ㉢ 망막에 맺힌 달은 우리 가족에게 서로 다른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다.

- | | ㉠ | ㉡ | ㉢ |
|---|--------|--------|----|
| ① | 지시체 | 관념 | 뜻 |
| ② | 내적 이미지 | 뜻 | 관념 |
| ③ | 지시체 | 뜻 | 관념 |
| ④ | 내적 이미지 | 관념 | 뜻 |
| ⑤ | 지시체 | 내적 이미지 | 뜻 |

18. 윗글을 읽은 학생이 프레게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각 꼭짓점에서 그 대변의 중점으로 이어지는 선을 a, b, c라고 할 때, ㉠ 'a와 b의 교점'과 ㉡ 'b와 c의 교점'의 지시체는 ㉢ 'o'이다. 따라서 ㉣ 'o는 a와 b의 교점이다.'와 같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① ㉠과 ㉡는 동일한 지시체를 지칭하지만 뜻은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과 ㉡는 몇 개의 단어와 기호로 구성되어 있지만 고유 이름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과 ㉡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에 대한 개인의 내적 이미지가 일치하기 때문이겠군.
- ④ ㉢에 대한 제시 방식에는 ㉠과 ㉡뿐만 아니라 'a와 c의 교점'도 포함할 수 있겠군.
- ⑤ ㉢는 'o는 o이다.'라는 문장과 인식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군.

19. 윗글을 참고할 때, 의미지칭이론에서 ㉠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유 이름은 다수의 지시체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겠군.
- ② 고유 이름과 지시체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겠군.
- ③ 고유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지시체 그 자체로 보기 때문이겠군.
- ④ 고유 이름과 지시체가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기 때문이겠군.
- ⑤ 고유 이름으로는 언어와 대상의 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겠군.

[20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하면 그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워 처벌이 힘들다. 이 때문에 근대에 들어 각국은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제도를 발전시켰다. **범죄인인도제도**는 해외에서 죄를 범한 범죄인이 자국 영역으로 도피해 온 경우, 그를 처벌하기를 원하는 외국의 청구에 응해 해당자를 인도하는 제도이다.

범죄인인도제도는 서로 범죄인인도를 할 것을 합의하고 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 간의 조약인 범죄인인도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범죄인인도가 원만히 진행되려면 상대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므로, 범죄인인도조약은 주로 양자조약의 형태로 발달하였으며 범세계적인 조약은 ㉠ **성립**되지 않고 있다. 사전에 체결된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서만 상대국가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발생하며, 어떤 국가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의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다.

범죄인인도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고 할 만큼 국제적으로 공통되는 것이 많다. 우선 대부분의 범죄인인도조약은 처벌 가능한 최소 형기를 기준으로 인도대상범죄를 규정한다.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는 청구국과 인도를 청구받는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성립되고, 주로 해당 범죄의 형기가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인도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부합하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청구국의 범죄인인도청구가 공식적으로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되면, 피청구국은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하여 실제로 범죄인을 인도할지를 결정한다. 이때 범죄인인도는 대부분 피청구국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해도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범죄인을 반드시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인인도거절 ㉡ **사유**로는 피청구국이 범죄인인도를 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와 범죄인인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가 있다.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인도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피청구국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는 중복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범죄인인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청구국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경우에도 범죄인인도가 거절된다.

또한 정치범도 일반적으로 범죄인인도가 불허된다. 정치범이란 국가나 국가 권력을 ㉢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말하는데, 정치범죄의 판단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죄인인도조약에 정치범죄의 정의가 포함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결국 어떤 행위가 정치범죄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은 피청구국에서 하게 된다. 대부분의 정치범죄가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도 함께 지니는 이른바 상대적 정치범죄인데, 일반적으로 범죄행위의 정치적 성격이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우월할 때 그것을 정치범죄로 판단한다. 하지만 어떤 범죄는 정치적 성격이 있더라도 정치범죄로 인정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국가원수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행위는 정치범 불인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가해조항이라 부른다. 그리고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행위 등은 많은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정치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는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다르다. 우선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자국민일 경우 피청구국이 범죄인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피청구국이 이런 자국민 불인도 조항에 따라 자국민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하고 범죄인을 처벌하지도 않으면, 결과적으로 범죄인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에 다수의 범죄인인도조약에는 피청구국이 자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인인도를 거절할 경우, 청구국의 요청이 있으면 피청구국은 기소 당국에 사건을 회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기도 한다. 또 범죄인이 청구국에 인도된 뒤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 ㉔ 예견될 때는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인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이유에서 사형을 폐지한 피청구국은 청구국이 대상 범죄인을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는 ㉕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인도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일도 많다.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되면 인도청구 사유가 되었던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데, 다만 인도 후 새로 저지른 범죄나 피청구국이 처벌에 동의한 범죄 등은 인도청구 사유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를 특정성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 또한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20.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인인도조약의 개념은 무엇일까?
- ② 범죄인인도거절 사유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 ③ 인도대상범죄를 규정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
- ④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할 의무는 무엇에 의해 발생하는 것일까?
- ⑤ 범죄인인도를 법원이 허가하면 범죄인의 신병은 언제 인도될까?

21. 범죄인인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근대에 들어 발전한 국제법상의 제도이다.
- ②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다.
- ③ 해외에 있는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④ 범세계적인 범죄인인도조약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 ⑤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간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

※ <보기>의 (가)와 (나)는 서로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는 A국과 B국 사이의 가상 사례이다. 22번과 23번 물음에 답하시오.

〈 보기 〉

(가) 제3국 국민인 X는 A국에서 경제 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B국으로 탈주했다. A국은 B국에 X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B국 법원은 X의 범죄가 인도대상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사건을 검토하여 X의 인도를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단, X는 A국, B국 중 어떤 나라와도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지 않은 나라의 국민이다.)

(나) A국 정부에 반대하는, A국 국민 Y가 그 정부를 전복하려는 활동의 하나로 A국의 무인 공공시설물을 파손하려다 발각된 뒤 B국으로 도피했고, A국은 B국에 Y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 B국 법원은 Y의 행위가 인도대상범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해당 사건의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과 정치범죄로서의 성격을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인도를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국과 B국의 법률에서는 X와 Y의 행위를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 ② A국과 B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자국민 불인도 조항이 있더라도, X와 Y는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 ③ Y의 행위는 X의 행위와 달리 범죄인인도조약상 B국이 범죄인인도를 허가할 수 없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할 것이다.
- ④ X는 Y와 달리 B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이지만, B국은 X, Y 모두에 대한 A국의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를 질 것이다.
- ⑤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해 X와 Y가 인도청구 전에 이미 B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B국은 X와 Y의 처벌을 위해 그 신병을 모두 A국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23. 윗글을 읽은 학생이 (나)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국 법원이 B국 법원 대신 Y의 행위가 정치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군.
- ② B국 법원은 Y의 행위가 일반 형사범죄로서의 성격보다 정치적 범죄로서의 성격이 더 강한 범죄라고 판단했겠군.
- ③ A국은 범죄인인도를 청구하면서 Y의 행위가 가해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Y의 신병을 A국에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겠군.
- ④ B국 법원은 대부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명시된 정치범죄에 대한 정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Y의 행위의 정치적 성격을 판단했겠군.
- ⑤ B국 법원은 Y의 행위가 무고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테러행위가 아니므로 정치범 불인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겠군.

24. <보기>는 학습 자료로 만든 범죄인인도조약의 일부이다. 밑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제4조

피청구국은 자국민을 인도할 의무는 없으나 재량에 따라 자국민을 인도할 권한을 갖는다. 자국민인 범죄인의 인도를 국적만을 이유로 거절하는 때에는,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소 당국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인도청구되는 범죄가 청구국의 법률상 사형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피청구국은 해당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단, 청구국이 사형을 선고하지 않거나, 사형선고를 할 경우에도 집행하지 않는다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6조

인도되는 범죄인은 피청구국에 의해 인도가 허용된 범죄, 인도 이후에 저지른 범죄, 피청구국이 처벌에 동의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청구국에서 처벌될 수 없다.

- ① 제4조에는 피청구국이 자국민 범죄인의 인도를 거절하고 범죄인을 처벌하지도 않을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군.
- ② 제5조에는 청구국의 법률상 사형선고가 가능한 경우, 피청구국이 청구국에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군.
- ③ 제6조의 내용으로 보아 이 조항은 특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제4조와 제5조는 모두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제5조와 제6조는 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겠군.

25.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킴.
- ② ㉡: 일의 까닭.
- ③ ㉢: 침범하여 해를 끼침.
- ④ ㉣: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짐작함.
- ⑤ ㉤: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26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상에는 너무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많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단백질 분자 구조와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는 관찰할 수 없다. 그래서 미세한 물질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짧은 파장의 빛의 영역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활용 가능한 빛이 바로 방사광이다. 방사광이란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바뀐 운동 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출되는 좁은 퍼짐의 전자기파를 가리킨다. 방사광은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에 이르는 다양한 파

장을 가진 빛으로,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파장 가변성을 @ 지닌다. 그리고 방사광은 휘도가 높은 빛이다. 휘도란 빛의 집중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빛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빛의 퍼짐이 작으면 작을수록 높은 휘도 값을 갖는다. 예를 들어 방사광에서 실험을 위해 선택된 X선은, 기존에 쓰던 X선보다 휘도가 수만 배 이상이라서 이를 활용하면 물질의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얻을 수 있다.

방사광은 자연에서는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할 때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를 연구에 활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고성능 슈퍼현미경이라고도 불리는 방사광가속기를 사용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사용한다. 방사광가속기는 일반적으로 크게 전자입사장치, 저장링, 빔라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입사장치는 전자를 방출시킨 뒤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켜 저장링으로 주입하는 장치로, 전자총과 선형가속기로 구성된다. 전자총은 고유한 파장을 가진 금속에 그 파장보다 짧은 파장의 빛을 가하면 전자가 방출되는 광전효과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전자를 방출시킨다. 이때 방출되는 전자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느려 높은 에너지를 가지지 못하므로, 선형가속기에서는 음(-)전하를 띤 전자가 양(+)전하를 띤 양극 쪽으로 움직이려는 전기적인 힘의 원리를 활용하여 전자를 가속시킨다. 선형가속기에서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된 전자는 이후 저장링으로 보내진다.

저장링은 휨전자석, 삼입장치, 고주파 공동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n각형 모양으로 설계하여 n개의 직선 부분과 n개의 모서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장링의 모서리 부분에는 전자의 방향을 조절해 주는 휨전자석을 설치하여 전자가 지속적으로 궤도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는 휨전자석을 지나면서 자석 주위의 자기장의 힘을 받아 휘게 되는데, 이때 전자의 운동 궤도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방사광이 방출된다. 저장링의 직선 부분에는 N극과 S극을 번갈아 배열한 삼입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전자는 삼입장치에서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N극과 S극의 사이에서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며 구불구불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뀔 때마다 방사광이 방출된다. 이렇게 방출된 방사광은, 위상이 동일한 방사광과 서로 중첩되면서 진폭이 커지는 간섭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삼입장치에서 중첩되어 진폭이 커진 방사광은, 휨전자석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큰 에너지를 지닌 더 밝은 방사광이 된다. 이때 휨전자석과 삼입장치를 통과하며 방사광을 방출한 전자는 에너지를 잃게 되고, 고주파 공동장치는 이러한 전자에 에너지를 보충하여 전자가 계속 궤도를 돌게 한다.

마지막으로 빔라인은 실험 목적에 맞도록 방사광에서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 실험에 이용하는 장치로, 크게 진공 자외선 빔라인과 X선 빔라인으로 나눌 수 있다. 진공 자외선 빔라인에서는 주로 기체 상태의 물질의 구조나 고체 표면에서의 물질의 구조 등에 관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X선 빔라인에서는 다른 빛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을 가진 X선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로 물질의 내부 구조, 원자 배열 등에 대한 실험이 이루어진다. 특히 X선 빔라인들 중 하나인 ㉠ X선 현미경은 최대 15 나노미터 정도 되는 생체 조직 등과 같은 물질의 내부 구조까지도 확대하여 관찰할 수 있다. X선은 가시광선과 달리 유리 렌즈나 거울을 써서 굴절시키거나 반사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X선 현미경은, 강력한 전자기장으로 X선을 굴절시켜 빛을 모을 수 있는 특수 금속 렌즈를 이용해 X선을 실험에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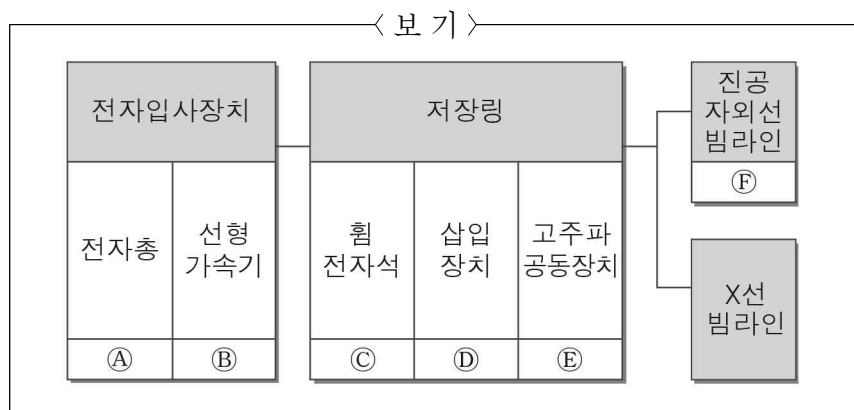
26.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험 목적에 따라 빔라인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다.
- ② 횡전자석의 개수는 저장링의 모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③ 빛의 집중 정도는 빛의 세기와 퍼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④ 전자는 양전하를 띤 양극 쪽으로 움직이려는 전기적인 힘이 있다.
- ⑤ 금속의 고유한 파장보다 긴 파장의 빛을 금속에 쬐면 전자를 방출시킬 수 있다.

27. 방사광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실험 목적에 따라 파장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빛이다.
- ② 방사광가속기에서 연구 목적으로 가속시키는 전자기파이다.
- ③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고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빛이다.
- ④ 휘도가 높아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빛이다.
- 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하는 전자가 방향을 바꿀 때 방출되는 전자기파이다.

28. <보기>는 방사광가속기의 주요 장치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광전효과를 활용하여 방출시킨 전자는 B에서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되어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되겠군.
- ② 전자는 C를 지나면서 자석 주위의 자기장의 힘을 받아 방향이 바뀌면서 궤도를 따라 회전할 수 있게 되겠군.
- ③ C에서 방출된 방사광이 D에서 방출된 방사광보다 밝은 이유는 D에서 방사광이 서로 중첩되어 진폭이 더 커졌기 때문이겠군.
- ④ C와 D를 통과하며 에너지가 손실된 전자는 E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 궤도를 계속 돌게 되겠군.
- ⑤ F는 실험 목적에 맞게 방사광에서 원하는 파장을 분리시켜 실험에 이용하는 장치이겠군.

29. 윗글의 ㉠과 <보기>의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광학 현미경은 가시광선을 굴절시켜 빛을 모을 수 있는 유리 렌즈를 이용해 물질의 표면을 확대하는 실험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광학 현미경의 렌즈 배율을 최대로 높이면 크기가 200 나노미터 정도 되는 물질까지 관찰할 수 있다.

- ① ㉠과 달리 ㉡은 물질의 내부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장치이다.
- ② ㉡과 달리 ㉠은 빛이 굴절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실험하는 장치이다.
- ③ ㉡과 달리 ㉠은 유리 렌즈를 활용하여 빛을 모아 물질을 확대하는 장치이다.
- ④ ㉡은, ㉠에서 사용하는 빛의 영역이 아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의 영역을 이용하는 장치이다.
- ⑤ ㉠은, ㉡에서 사용하는 빛보다 상대적으로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하여 물질을 관찰할 수 있는 장치이다.

30. 문맥상 ㉠과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그는 딸의 사진을 품속에 지니고 다닌다.
- ② 그는 일을 성사시킬 책임을 지니고 있다.
- ③ 그는 어릴 때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 ④ 그는 유년 시절의 추억을 가슴 속에 지니고 살았다.
- ⑤ 그는 자신의 이론이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관찰사는 아들을 불러 말했다.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는 아버도 아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법이니, 나 역시 네 마음을 막을 도리가 없다. 내가 보니 자란과 네가 사랑하는 정이 깊어 헤어지기 어려울 듯하구나. 헌데 너는 아직 혼인하지 않은 터라, 지금 만일 자란을 데리고 간다면 앞으로 혼인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다만 남자가 첩 하나 두는 거야 세상에 흔한 일이니, 네가 자란을 사랑해서 도저히 잊을 수 없다면 비록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감당해야겠지. 네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게 좋겠으니, 숨기지 말고 네 속마음을 말해 보거라.”
 도령이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아버지께선 제가 그깟 기녀 하나와 떨어진다고 해서 상사병이라도 들 거라 생각하십니까? 한때 제가 변화한 데 눈을 주긴 했지만, 지금 그 아이를 버리고 서울로 가면 헌신짝여기듯이 할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 아이에게 연연하여 잊지 못하는 마음을 가질 리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이 일로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A] 관찰사 부부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 아이가 진정 대장부로구나.”
 이별의 날이 왔다. 자란은 눈물을 쏟고 목메어 울며 도령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했다. 하지만 도령은 조금도 연연해하는 기색이 없었다. ㉠ 관아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며 도령의 의연한 모습에 감탄했다.
 그러나 실은 도령이 자란과 오류 년을 함께 지내며 한시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까닭에 이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고, 그래서 호쾌한 말을 내뱉으며 이별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다.

관찰사는 임무를 마치고 대사헌에 임명되어 조정으로 돌아왔다. 도령은 부모를 따라 ㉠ 서울로 돌아온 뒤 차츰 자신이 자란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지만 감히 내색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잠시가 다가왔다. 도령은 부친의 명을 받아 친구 몇 사람과 함께 산속에 있는 ㉡ 절에 들어가 시험 준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벼들은 모두 잠들었는데, 도령 혼자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나와 뜰 앞을 서성였다. 때는 바야흐로 한겨울이라 쌓인 눈 위로 달빛이 환했고, 깊은 산 적막한 밤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도령은 달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란 생각이 들며 마음이 서글퍼졌다. 한 번만이라도 자란의 얼굴을 보고 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 없어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되었다.

마침내 도령은 한밤중에 절을 뛰쳐나와 곧장 ㉢ 평양으로 향했다. 털모자에 쪽빛 비단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은 채 길을 걷노라니 10여 리도 채 못 가서 발병이 나 걸을 수가 없었다. 시골 농가를 찾아가 신고 있던 가죽신을 내주고는 짚신을 얻어 신었고, 털모자를 벗어 던지고 그 대신 해지고 테두리가 뜯어진 병거지를 얻어 머리에 썼다. 길을 가며 밥을 빌어먹다 보니 늘 굶주릴 때가 많았고, 여관 한 귀퉁이에 빌붙어 잠을 자다 보니 밤새도록 추위에 몸이 얼었다.

[중략 줄거리] 평양에 도착한 도령은 자란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기녀인 자란은 이미 새로 부임한 관찰사 아들의 총애를 받고 있다. 도령은 자란을 만나기 위해 그녀가 기거하는 곳에서 눈을 쓰는 인부로 일을 하게 되고, 둘은 극적으로 재회하게 된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자란의 어머니가 깊이 잠든 틈을 타 보따리를 이고 지고 몰래 달아났다. 양덕과 맹산 사이의 ㉣ 깊은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는 시골 촌가에 몸을 의탁했다.

처음에는 그 집 머슴살이를 했는데, 도령은 천한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하지만 자란이 베 짜기와 바느질을 잘했으므로 그 덕분에 겨우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얼마 뒤에는 마을에 몇 칸짜리 초가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자란이 베 짜기와 바느질을 부지런히 하며 밤낮으로 쉬지 않았고, 또 지니고 온 옷가지와 패물을 팔아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마련하니 살림이 아주 궁핍하지는 않았다. 자란은 또 이웃과도 잘 지내며 환심을 샀기에, 사방 이웃들이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며 도움을 주었으므로 마침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예전에 도령이 절을 뛰쳐나왔을 때의 일이다. 절에서 함께 공부하던 도령의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 도령이 보이지 않자 깜짝 놀랐다. 친구들은 즉시 승려들과 함께 온 산을 살살이 뒤졌지만 끝내 도령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다. 도령의 집에 소식이 전해지자 온 집안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다. 많은 하인들을 풀어 절 부근 수십 리를 며칠 동안 살살이 뒤져 보았지만 역시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모두들 이렇게 말했다.

“요사한 여우에게 홀려서 죽었거나 호랑이 밥이 된 게 틀림없다.”

결국 도령의 상을 치르고 빈 무덤 앞에서 제사를 지냈다.

신임 관찰사의 아들은 자란이 달아난 뒤 서운으로 하여금 자란의 어머니와 친척을 모두 가두고 자란의 행방을 쫓게 했으나, 몇 달이 지나도 종적을 알 수 없자 포기하고 말았다.

자란은 도령과 자리를 잡고 살아가던 어느 날 도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재상 가문의 외아들이건만 한낱 기생에게 빠져 부모를 버리고 달아나 외진 산골에 숨어 살며 집에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하니,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을 것이며 이보다 나쁜 행실은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늙어 죽을 수는 없는 일이지요, 그렇다고 지금 얼굴을 들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지요. 당신은 앞으로 어찌 할 작정인가요?”

도령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다.

“나도 그게 걱정이지만, 어떡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자란이 말했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그런대로 과거의 허물을 덮는 동시에 새로운 공을 이룰 수 있어, 위로는 부모님을 다시 모실 수 있고 아래로는 세상에 홀로 나설 수 있는 길인데, 당신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도령이 물었다.

“대체 어떤 방법이요?”

자란이 말했다.

“오직 과거에 급제해서 이름을 떨치는 길 한 가지뿐이지요. 더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도령이 몹시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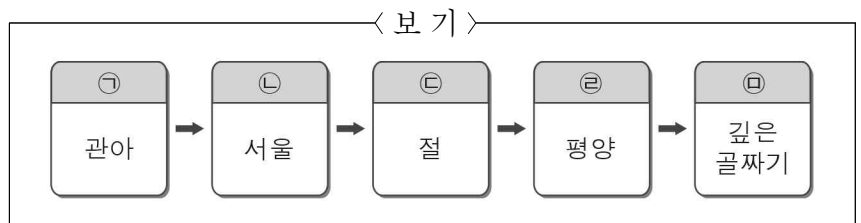
“참으로 좋은 계책이요.”

- 임방, 「옥소선」 -

31. 윗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이 겪은 일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인물이 처한 상황을 외양 묘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③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전기적 요소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이야기의 전개 도중 그보다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32. <보기>는 윗글의 ‘도령’이 이동한 경로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으로 이동한 이유는 부친이 ㉠에서의 임무를 마쳤기 때문이다.
- ② ㉡에서 ㉢으로 이동한 것은 ㉢의 인물들이 옥에 갇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 ③ ㉢에서 ㉣로 향한 것을 ㉢에 함께 있었던 인물들은 알지 못했다.
- ④ ㉢에서 ㉣로 향한 것은 과거 ㉠에서 헤어졌던 인물이 보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 ⑤ ㉣에서 ㉤으로 이동한 것은 ㉣에서 만난 인물과 함께 살기 위해서이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신분이 다른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애정 소설이다. 작품 속 주인공들은 사회적으로 중시되는 효나 입신양명과 같은 유교적 가치와, 신분 질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한다. 하지만 주인공들이 인간의 본질적 욕망인 사랑을 성취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한편 사랑을 성취한 후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성 인물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 ① 도령과 자란이 이별하는 장면을 통해, 신분 질서의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의 의지대로 행동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도령이 실성한 사람처럼 되어 자란을 찾아가는 장면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자란과 도령이 도망한 후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는 장면을 통해, 여성 인물의 역할이 확대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도령이 자란의 문제 제기에 눈물을 흘리며 동의하는 장면을 통해, 주인공들이 효를 중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자란이 과거 급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장면을 통해, 유교적 가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34. [A]와 [B]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확신하며 청자를 안심시키고 있고, [B]에서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환기하며 청자의 생각을 묻고 있다.
- ② [A]에서는 청자의 장점을 언급하며 청자의 성품을 칭송하고 있고, [B]에서는 청자의 잘못을 지적하며 청자의 언행을 질책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청자에게 질문을 반복하며 예견되는 상황을 장담하고 있고, [B]에서는 청자에게 명령을 거듭하며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청자의 의견에 반박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고, [B]에서는 청자의 의견에 동의하며 청자의 삶의 방식을 칭찬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근거로 들며 청자를 설득하고 있고, [B]에서는 청자의 신분적 위세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생각을 감추고 있다.

[35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高原)
서릿발 칼날진 그 위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꿇어야 하나
한 발 재겨 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 감아 생각해 불밖에
겨울은 강철로 된 무지개가 보다.

-이육사, 「절정」-

(나)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벌거벗고 언 땅에 꽃혀 자라는
초록의 겨울보리,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추운 몸으로 왔다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겨울 나무들을 보라
추위의 먼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
있는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려 가고
줄기는 이렇듯이
충진 부싯돌*임을 보라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해집고 입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열두 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하얗게 드러눕는
함박눈 눈송이로 온다

-김남조, 「생명」-

*부싯돌: 불씨를 일으키기 위해 사용되는 돌.

3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성상징어를 제시하여 생동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추상적 관념을 시각화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추측의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명령형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6. 다음은 (가)를 읽은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작품을 감상할 때, 계절의 이미지에 주목하여 읽으니 화자의 상황과 정서에 더 공감할 수 있었다. ㉠ 작품 속 계절적 상황이 '매운'이라는 감각적 이미지로 제시되어 있으니 혹독한 추위가 실감나게 느껴졌고, ㉡ 겨울을 연상시키는 '서릿발'이라는 시어에서는 겨울이 주는 시련의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았다. ㉢ 이러한 겨울의 이미지들이 '북방'과 '고원'이라는 극한적 공간의 이미지와 맞물리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이 고통스럽다는 것에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 화자가 고난이 끝났음을 인지하고 '한 발 재겨 디딜 곳'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려는 자세를 본받고 싶어졌다. 또한 ㉤ 겨울을 '강철로 된 무지개'의 이미지로 전환하여 현실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려는 화자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7.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은 생명의 속성을 자연물로 형상화하며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생명이란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보여주며 삶의 진실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한다. 또한 생성과 소멸이라는 이중적인 속성을 가진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 고통을 감내하며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는 생명의 속성을 드러낸다.

- ① '언 땅에 꽃혀 자라는' '겨울보리'의 모습에서 생명의 속성을 자연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진실'이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오는 모습에서 삶의 진실도 생명의 속성과 다르지 않다고 여기는 화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제 몸'을 '추위의 면도날'로 '다듬'는 '겨울 나무'의 모습에서 고통을 감내하는 자연물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떨어져' '불려 가'는 '잎'과 '충진 부싯돌'인 '줄기'의 모습에서 소멸과 생성이라는 자연물의 이중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상한 살을 해집고 입맞'추는 사람을 부정하는 모습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겠군.

[38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봐요 박관돌 씨, 나를 알아보겠소?”
나는 검사실에서 피의자를 다루듯 목줄을 팻팻하게 세우고 뺨과리 치는 소리로 통명스럽게 내질렀다.
“알아 뵈시고말고요……. 진작 한번 찾아뵈려고 했으나…….”
박관돌이가 이렇게 입을 열며 고개를 쳐들자, 나는 다시 햇살이 뭉음으로 쏟아지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정말이지 마음이 떨려서 그를 정면으로 마주 보기가 싫었다. 박관돌의 시선이 찢러올 때마다 온몸을 짝 훑어 내리는 듯한 전율에 심신 가늠할 바를 몰라했다.
“그래 돈을 많이 벌었다면서요?”
나는 하늘을 쳐다본 채 허탈하게 물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승열승열 맺혔다. 박관돌이도 땀방울이 서 있기가 무더운지 손바닥으로 연신 이마의 땀을 훑었다.
“마님은 잘 계시나요?”
박관돌은 비굴한 목소리로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다.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내가 고향에 간다는 것을 한사코 말렸었다. 자식된 도리로 개죽음 당한 아버지 뼈라도 찾아서 편히 모셔야 하지 않겠냐며, 꿈꾸듯 오랫동안 별려 온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나를 붙들고 늘어지며,
“아야, 고향 고향 말만 들어도 오장육부가 뒤집히는 것 같다와. 너는 고향이 징허도 않냐? 지발 고향 이약 그만해라 와. 한번 죽어 흙 된 사람 이제사 뺨다귀 편하게 묻어 준들 죽은니 아버지가 알아주겠냐? 그리고 그 개만도 못헌 판돌이 놈 만나서 멀 어찌자는 그냐. 네 아버지 판돌이 놈이 끌고 가서 죽였다는 것 솔매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인디, 인저 그 개만도 못헌 놈, 만나서 다리를 분지를 굿이냐, 칼로 배를 딸 굿이냐. 지난 일은 다 잊고 앞으로 살 일이나 걱정허. 너 잘되면 그기 다 판돌이 놈헌티는 뼈아픈 복수가 되는 기여. 네가 고등 고시 합격허서 검사가 되었다는 소식 듣고 간이 콩알만 히졌을 굿이다. 아서, 고향 갈 생각을 말으라!”
어머니는 매지매지 가슴에 맺힌 한(恨)을 되씹으며 박관돌이 놈, 박관돌이 놈 하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양미간에 가벼운 경련을 일으켰다.
그런 어머니 말에 나는 자신이 보잘것없이 되었다면 부끄러워서도 고향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으나, 이만큼이나 되어서 무엇이 두려워 수구초심(首邱初心)으로 동경해 온 귀향을 꺾을 수 있겠느냐고 승낙을 받는 데 진땀을 뺐다. 개죽음 당한 아버지 유골이 지리산 계곡에 비바람 맞으며 나뒹굴어, 구천에 정처 없이 떠돌음하는 혼백이라도 위로해 주어야 할 게 아니냐고 설득을 했다. 얼굴에 도깨비 가죽 둘러쓴 박관돌이가 제 발로 찾아와서 비대발팔 손이 발 되게 빌면 또 몰라도, 염불위괴로 조금도 자기의 죄 뉘우침 없음이 한결 괴악망측하게 생각되었던 것이다.
[중략 줄거리] 나는 판돌과 함께 지리산 세석평전으로 가서 아버지의 유골을 수습하고 그에게서 두 집안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나는 판돌의 어머니가 나의 조부에게 농락을 당했고, 이를 들킨 나의 조부가 판돌 부자를 죽보에 올려주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긴 이야기를 토해 낸 판돌이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둠에 묻힌 먼 하늘을 바라보기조차 부끄러워 자꾸만 고개가 무겁게 내려앉은 나도 마음이 별 없는 하늘처럼 숨 가쁘게 답답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 산상(山上)의 밤보다 더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 늘처럼 짙게 깔렸다.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이 박쇠 아들이라는 건 언제 밝혔소?”

나는 바윗덩어리처럼 무겁게 나를 쥘 누르고 있는 판돌이를 마치 박쇠처럼 생각하면서 우울하게 물었다.

“어디 기회가 있어야죠. 또 같이 살다 보니깐 마음이 약해 집니다. 사실 지는 도련님 댁 머슴이었지만, 두 어른들 도움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그라고 도련님 식구들과 오래 한술밥 묵고 살다 보니깐 정도 붙고 해서…… 지난 일들을 잊어버릴까 허는 생각도 납니다. 또 어르신께서 우리 아버지를 꺾이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고…….”

판돌이는 잠시 말을 멎고 머리를 무겁게 떨구었다가 천천히 들어올렸다.

“6·25가 터지고 세상이 뒤집히니깐, 지 마음도 세상과 함께 뒤집힙니다요. 좌우당간에 어르신한테 한번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드만요. 그래서 그 어른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들어갔지요. 어르신한테 지가 오래오래 품속에 간직해 왔던, 지 조부님 종 문서허고, 도련님 조부님이 지어 주셨다는 우리 부자 이름이 적힌 종이를 보이면서, 지 신분을 밝혔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어디서 죽였느냐고 성질을 냈어요. 사실 그때 지는 어르신께에서 거짓말로라도 지 아버지를 절대 꺾이지 않았다고 말하기를 맘속으로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그란디…… 그란디 말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지가 그렇게 바랐던 것과는 달리 우리 아버지를 세석평전에서 엽총으로 쏘 죽였다고 쉽게 고백을 허시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언젠가는 낫으로 어르신의 아버지를 찍어 찍일 것만 같았고…… 또 지 부자가 도련님 댁 족보에 오르는 것이 싫어서 멧돼지 사냥을 나와 세석평전까지 끌고 가서 쏘 죽였다고 허드만요. 어르신은 그러면서 보잘것없는 지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지는 그런 어르신이 싫었던 거지요. 차라리 그때 나한테 불호령을 치셨더라면 지 마음이 약해져서…….”

[A]

“그래서 판돌 씨도 우리 아버지를 세석평전까지 끌고 와서…….”

“어르신께서 지 아버지를 꺾인 곳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지도 어머니 유언대로 올 아버지 뼈라도 찾을까 허고…….”

“그래, 찾았나요?”

나는 판돌이가 그의 아버지 유골을 찾았기를 바라면서 물었다. “위디가요. 세석평전을 다 뒤져 봤지만 철 늑은 철쭉꽃만 휘너 후려져서……. 허가, **족보**에도 못 오른 아버지한테 무덤은 남겨서 뭘 하겠어요? 차라리 잘됐지요 머. 물론 저도 아직 족보가 없습니다만. 그까짓 족보 있으면 어찌고 없으면 어쩍니까. 지 아버지는 족보에 이름 석 자 올릴 욕심으로 죽을 때꺼정 켁켁 댔지만, 지는 족보 대신 돈을 갖기루 걱정했지요. 족보가 없는 대신 돈이라도 몽땅 벌자 허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았지요. 이제는 백만 원만 주고도 지가 박씨 문중에서 문벌 좋은 집안을 탈탈 골라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까짓 족보 있으면 뭘 해요? 주민등록증 하나면 얼마든지 출세를 허는 세상인디. 지는 족보 대신에 아직도 우리 조부님 종 문서허고 도련님 조부님이 박판돌이라고 지어 주신 지 부자 이름이 적힌 종이쪽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구만요. 으쩌면 족보보다는 그거이 더 귀한 것일지도 모르제요.”

판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바로 판돌이 당신이었구만요 하고 물으려다가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문순태, 「철쭉제」-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이전에 일어난 사건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에 대해 묘사하여 역사적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렬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④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사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작품 밖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39. **족보**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판돌의 아버지는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기를 평생 고대했다고 볼 수 있다.
- ② 판돌은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③ ‘나’는 족보에 오른 판돌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고향에 돌아왔다고 볼 수 있다.
- ④ 판돌은 족보를 갖는 대신에 판돌 부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쪽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 ⑤ ‘나’의 아버지는 판돌 부자의 이름이 족보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볼 수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의 주인공인 ‘나’는 가족이 겪은 비극으로 인하여 한을 품게 된다. 소통의 단절로 인하여 한을 해소할 기회를 잃게 된 ‘나’는 자신만의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 이후 한을 품게 한 대상과의 재회를 통해 인식이 전환되고, 이는 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① ‘나’의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것은 주인공의 내면에 한이 형성되는 이유가 되었겠군.
- ② ‘나’가 고등 고시에 합격하여 검사가 된 것은 한을 품게 한 대상과의 재회를 가능하게 했겠군.
- ③ ‘나’가 오랜 시간 고향을 떠나 있었던 것은 소통의 단절로 인해 한을 해소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이유가 되겠군.
- ④ ‘나’가 박쇠의 유골을 판돌이 찾았기를 바라는 것은 한의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나’가 마주 보기도 싫은 판돌에게 어렵게 근황을 묻는 것은 한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군.

41. [A]를 다음의 시나리오로 각색한 후 이를 촬영한다고 할 때, 고려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S#95. 지리산 세석평전(밤)
고개를 들어 판돌을 바라보는 박 검사.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박 검사의 얼굴.(얼굴 C.U.*)

박 검사: (낮고 우울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당신이 박쇠 아들이라는 건 왜 숨겼소? 우리 아버지한테 박쇠 아들이라는 건 언제 밝혔소?

판돌: 어디 기회가 있어야죠. 또, 같이 살다보니까 마음이 약해 집니다. 또 어르신께서 우리 아버지를 꺾이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고... (머리를 떨구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6·25가 터지고 세상이 뒤집히니까, 저 마음도 세상과 함께 뒤집혔습니다요. 좌우당간에 어르신한테 한번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드만요. 그래서...

S#96. (과거) 지리산 세석평전(낮)
판돌, 인동(박 검사의 아버지)의 손목을 끌고 산을 오르고 있다. 인동, 가쁜 숨을 몰아쉬며 판돌의 뒤를 따라가다 넘어진다. 그런 인동을 돌아보는 판돌.

판돌: (종이를 인동의 얼굴을 향해 던지며) 이게 뭔줄 아십니까요? 지 조부님 종 문서고, 여기 적힌, (홍분한 목소리로) 박쇠 아들 박판돌이가, 바로 저올시다.

인동: (무릎을 꿇으며) 이럴 수가... 네가, 박쇠의... (말을 잊지 못하며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그래, 이제는 사실을 밝혀야겠구만.

판돌(E.*): 안돼야, 제발, 제발 그 말만은...

인동: (눈물을 흘리며) 느그 아버지를 죽인 것은 나여. 나를 용서해라. 내가 잘못했어야. 미안허다...

* C.U.: 인물이나 물체 등 어느 특정한 부분을 크게 확대하여 잡는 기법.
* E.: 화면에 삽입된 음향.

구분	고려한 사항
각색	S#95에서는 판돌이 정체를 밝히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박 검사의 대사에 추가해 박 검사의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임을 드러내야겠어. ①
	S#96은 과거 사건에 대해 고백하는 판돌의 말을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대화 장면으로 제시하여 현장감을 높여야겠어. ②
	S#96에서는 판돌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한 행동에 담긴 감정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지시문을 구성해야겠어. ③
연출	S#95를 연출할 때는, 판돌을 바라보는 박 검사의 심리를 부각하기 위해 인물의 얼굴을 확대하여 표정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야겠어. ④
	S#96을 연출할 때는, 판돌의 목소리를 효과음으로 처리하여 인동의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판돌의 속마음이 생생하게 전달되도록 해야겠어. ⑤

[42~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 시가에는 둘 이상의 인물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대화체로 구성된 작품들이 있다. 이들 작품 속에 나타나는 대화 양상은 임진왜란을 전후로 하여 차별성을 보이는데, 아래 작품들은 그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송강 정철은 1585년 당쟁으로 조정에서 물러나 창평에서 머물며 (가)를 지었다.

(가)
데가는 더각시 본뜻도 혼더이고
천상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하야 이별하고
① 히다더 저른날의 놀을보라 가시느고
어와 네여이고 이 내 스쥔 드러보오
내얼굴 이거동이 님괴얍죽* 흥가마는
엇딘디 날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식
나도 님을미더 군쁘디 전혀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흥똥똥디
반기시는 늦비치 네와엇디 다투신고
누어 싱각하고 니러안자 헤여하니
내몸의 지은죄 죄기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허라
설위 플터헤니 조물의 타시로다
(중략)
어와 허스로다 이님이 어딴간고
결의 니러안자 창을열고 브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이나 되야이셔
님겨신 창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② 각시님 들이야 크니와 구즌비나 되쇼셔

-정철, 「속미인곡」-

* 괴얍죽: 사랑받음직.
* 이리야: 아양이며.
* 식여디여: 죽어져서.

(가)는 작품 전체가 두 인물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대화는 서로 대등한 비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인물의 사실이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화를 주도한다. 반면 다른 한 인물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사실을 이끌어내거나, 상대방의 사실에 의견을 덧붙여 첨언을 하는 등 보조적 역할만을 담당한다. 이러한 대화체의 경우, 주도적 인물의 사실은 작자의식을 드러내고, 보조적 인물의 사실은 작자의식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작품의 대화는 어느 정도 통합된 주제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대화체를 ‘단한 대화체’라고 한다. ㉠(가)에서 작자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 임금이 있는 조정을 떠난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와 정서를 단한 대화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작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책하고 나아가 이를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금 곁에 머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탄식하면서도 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충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임진왜란 이후에는 이전의 대화 양상과 다른 새로운 대화체가 등장하였는데, 1661년에 임유후가 지은 (나)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나)

- 녹양방초(綠楊芳草) 안의 소 먹이난 아해들아
 인간영락(人間榮樂)*을 아난다 모라난다
인생 백년이 풀곳에 이슬이라
 삼만 육천일을 다사라도 초초(草草)커든*
 수단(修短)이 명(命)이어나 사생(死生)을 결(缺)할소냐
생애는 유한(有限)하되 사일(死日)은 무궁(無窮)하다
 역려건곤(逆旅乾坤)*의 부유(蜉蝣)*가티 나왓다가
 공명(功名)도 못 일우고 초목(草木)가티 썩어디면
공산백골(空山白骨)*이 괴 아니 늦거오냐*
 (중략)
 입신양명(立身揚名)을 험 밧기 더더두고
연교(煙郊) 초야(草野)*의 소치기만 하나산다
 목동(牧童)이 대답하되
 어와 괴 뉘신고 우은 말삼 듯건디고
 형용이 고고(枯槁)하니 초대부(楚大夫) 삼려(三閭)*신가
 잔혼(殘魂)이 영락(零落)하니 유학사(柳學士) 자후(子厚)*신가
 일모(日暮) 수죽(修竹)의 혼자 어득 서 겨오서
 ㉠ **내 근심 더더 두고 남의 분별(分別) 하시는고**
 (중략)
기산(箕山)*의 귀 씻기와 상류(上流)의 소 먹이기
 ㉡ **즐겁고 즐거오물 너해난 모라리라**
내 노래 한 곡조랄 불너든 드러보소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풍진(風塵)이 아득하다
 ㉢ **부귀(富貴)는 부운(浮雲)이오 공명(功名)은 와각(蝸殼)*이라**
 이 통소 한 곡조의 행화촌(杏花村)*을 차차리라
 -임유후, 「목동문답가」-

* 인간영락: 인간 생활이 영화롭고 즐거움.
 * 초초커든: 갓출 것을 다 갖추지 못하여 초라하거든.
 * 역려건곤: 덧없고 허무한 세상.
 * 부유: 하루살이.
 * 공산백골: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죽음에 이름을 비유하는 말.
 * 늦거오냐: 마음에 북받칠까.
 * 연교 초야: 시골 들판.
 * 삼려: 굴원, 초나라 충신이었으나 참소로 쫓겨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시인.
 * 자후: 유종원, 당나라 개혁에 실패하고 지방 벼슬을 전전한 철학자.
 * 기산: 요임금 때 소부와 허유가 공명을 피해 은거했다는 산.
 * 와각: 알맹이가 비어 있는 달팽이 껍질.
 * 행화촌: 안빈낙도의 이상향.

(나)는 (가)와 달리 ‘목동이 대답하되’를 중심으로 상호 대립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두 인물의 의견이 [A]와 [B]로 대등하게 병치되어 있다. ㉠ [A]의 인물은 인생이 유한하여 허무한 것이라고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부귀공명이나 입신양명과 같은 인간영락을 추구하는 삶이 가치 있다고 강조하며, 대화 상대의 삶의 방식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의 인물은 물음을 통한 상대방의 간섭에 대해 반문하고, 상대방의 삶의 방식을 조롱하며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과시하기도 한다. 또한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며 자연에 의탁하여 사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나)에 나타난 대화는 독자적 인물들 사이의 긴장을 유지시키며 서로의 주장을 대등한 비중으로 대립시킨다. 그래서 작자의식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드러나지 않는데, 이러한 대화체를 ‘열린 대화체’라고 한다.

42. ㉠을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천상 백옥경을 엿디하야 이별호고’에는 임금이 있는 조정을 떠난 상황이 드러나 있군.
 ② ‘내얼굴 이거동이 남피암즉 흥가마는’에는 정치적 반대 세력에 의해 처하게 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책이 드러나 있군.
 ③ ‘설위 플터헤니 조물의 타시로다’에는 자신의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드러나 있군.
 ④ ‘어옛븐 그림재 날조출 썬이로다’에는 임금 곁에 머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탄식이 드러나 있군.
 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이나 되야이셔’에는 임금에 대한 변치 않는 충정이 드러나 있군.

43. ㉡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 먹이난 아해들아’와 같은 부름의 표현을 활용하여 대화의 상대를 밝히고 있다.
 ② ‘인생 백년이 풀곳에 이슬이라’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생의 허무함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생애는 유한하되 사일은 무궁하다’와 같은 대구의 표현을 활용하여 인간영락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④ ‘공산백골이 괴 아니 늦거오냐’와 같은 물음의 표현을 활용하여 공명을 추구하지 않은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⑤ ‘연교 초야의 소치기만 하나산다’와 같은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삶의 방식에 대한 질책을 드러내고 있다.

44. ‘닫힌 대화체’와 ‘열린 대화체’의 대화 양상을 중심으로 ㉠~㉣에 대해 보인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에서는 보조적 인물의 질문을 통해, 주도적 인물의 사설을 이끌어내는 ‘닫힌 대화체’의 특징을 엿볼 수 있겠군.
 ② ㉡에서는 보조적 인물의 첨언을 통해, 주도적 인물의 사설에 담긴 작자의식을 강조하는 ‘닫힌 대화체’의 특징을 엿볼 수 있겠군.
 ③ ㉢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반문을 통해, 독자적 인물들의 대화를 단 일한 주제로 통합시키는 ‘열린 대화체’의 특징을 엿볼 수 있겠군.
 ④ ㉣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조롱 섞인 과시를 통해, 독자적 인물들 사이의 긴장을 유지시키는 ‘열린 대화체’의 특징을 엿볼 수 있겠군.
 ⑤ ㉣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반박을 통해, 독자적 인물들의 주장을 대등하게 대립시키는 ‘열린 대화체’의 특징을 엿볼 수 있겠군.

45. (가)의 내 스설과 (나)의 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내 스설’을 통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성찰을, ‘내 노래’를 통해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를 드러내고 있다.
 ② ‘내 스설’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내 노래’를 통해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내 스설’을 통해 자신이 현재 느끼고 있는 흥취를, ‘내 노래’를 통해 자신이 과거에 느꼈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④ ‘내 스설’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의 변화를, ‘내 노래’를 통해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⑤ ‘내 스설’을 통해 자신이 현재 상황에 처한 이유를, ‘내 노래’를 통해 자신이 현재의 삶을 선택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